

현대 스웨덴 도예계의 경향과 도예가들(3)

벽난로를 제작하는 도예가 아니카 스벤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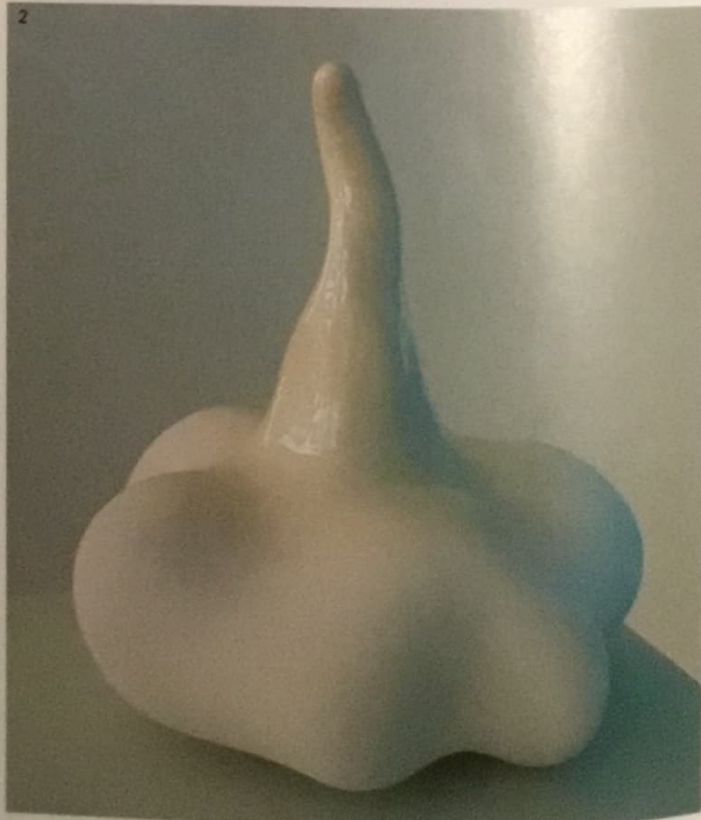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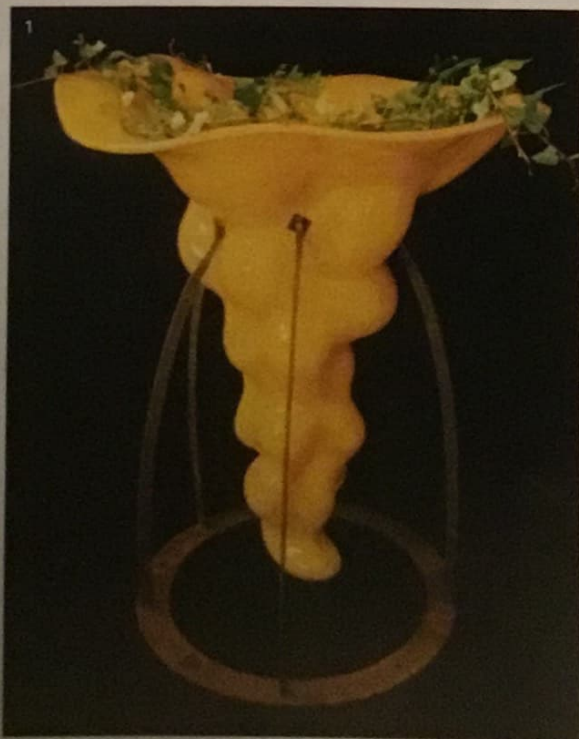
Annika Sven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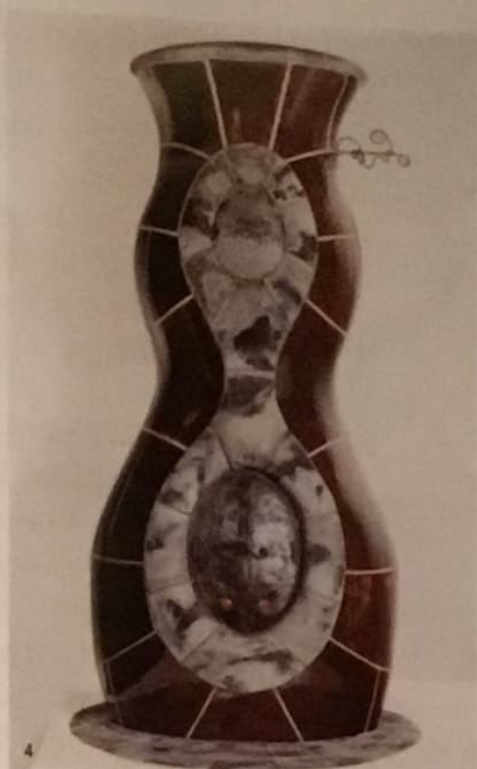
글 김정아_ 스웨덴리porter 사진 아니카 스벤손 제공

아니카는 새로 주문되는 현대식 벽난로뿐만 아니라 골동품 벽난로의 재현이나 부분복원 등도 의뢰받아 제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는 스웨덴 국회의사당과 레뢰성 Lacko castle에 설치되어 있는 벽난로들을 들 수 있다. 1997년에 제작된 레뢰성의 벽난로는 황금색 톤의 유약에 강렬한 붉은 색이 부분적으로 입혀져 있으며, 높이는 2.65m이다. 2002년에 제작된 「Sculptural stove」는 그녀의 할머니가 소장하고 있던 모라에서 제작된 중세 스웨덴식 골동품 시계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담은 것으로 지극히 모성적이며 여성적인 그녀를 잘 표현해주는 대표작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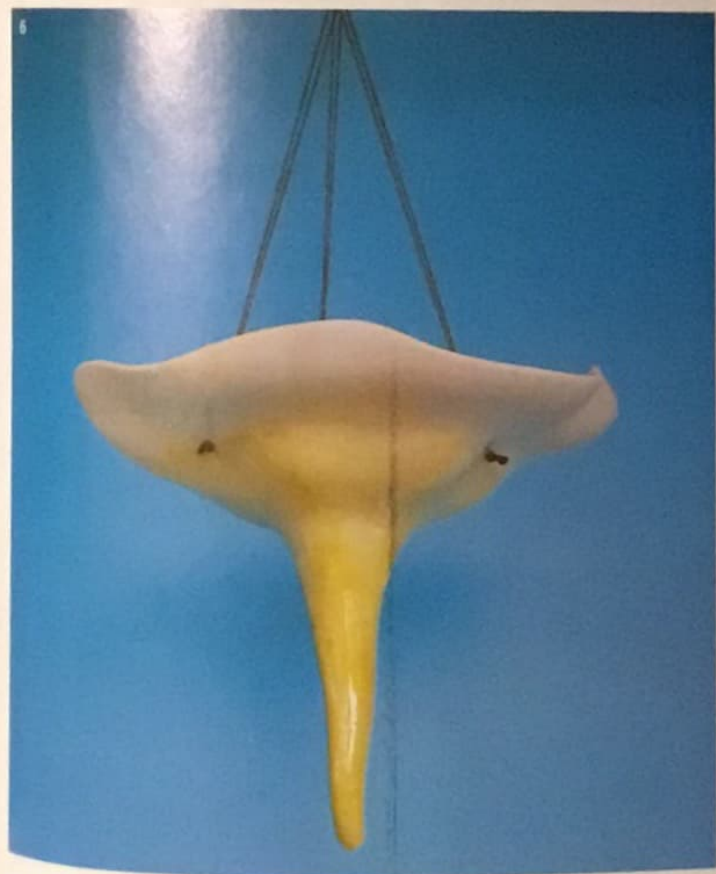
2. 도예가 아니카 스벤손

필자에게는 HDK 도예과의 5년 후배이지만 예바 힐드(6월호)와 안나 소피아 모그(7월호)의 선배인 아니카 스벤손은, 이미 HDK 재학 중부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전통 도자벽난로를 혼자 공부하고 석사과정 일 때는 본격적으로 도자벽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띈 특별한 학생이었다. 건축가 가우디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듯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력과 강도가 강하며 번조 후 표면에 자연스럽게 특별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매우 낮은 온도의 노천가마로 번조되었음에도 흡수성이 적고 기능성이 뛰어난 전통 아프리카 지역 점토를 좋아한다. 아니카는 1990년 재학 중 옷데 보리 시와 국립식물원의 문화 예술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부터 식물과 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식물의 형태, 구조, 화학적 문양, 조화, 긴장감 등이 주는 지루하지 않은 끝없는 영감을 사로잡혀 지속적으로 도예화분 등 기능성 있는 도자와, 식물이나 꽃을 주제로 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녀는 점토만이 갖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작업에





1 'Prakturna, 2000
 2 'White,
 3 타일도자 벽난로 (제작 중인 도예가 아니카)
 4 'Sculptural 타일도자 (고2, 높이 2.36m, 토기질 점토(Earthenware), 광택 타일들은 광택토기질 유약을 사용함), 신화번조, 무광택 타일들은 환원분위기로 소금가마에서 번조. (Photo: Lisa Brundstrom)
 5 건조중인 아니카의 타일도자 벽난로
 6 'Dinglande de...



호하는 편이며, 점토와 유약은 특별한 종류에 구애 없이 작품의 성격과 최종적인 기능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

아니카는 올해 만34세로 미술 중·고등학교를 거쳐 2년제 미술 전문 대학을 마친 후 다시 HDK의 학사과정에 입학하여 도예전공으로 학·석사학위를 받았다. 14세 된 아들과 10세 된 딸이 있는 어머니로 집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개인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

아니카는 2000년까지 HDK 도예과의 기술조교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전업도예가로 각종 국내외 전시회, 도예·공예 학술대회와 세미나, 워크숍 참가, 북유럽과 스웨덴공예가 협회 등 사회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옷데보리에 있는 도예가 협회 레르베르크가 운영하는 화랑소속 전업 작가이다. HDK 졸업 후 지금까지 꾸준히 각종 예술인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스웨덴의 디자인과 공예계를 대표하는 젊은 도예가로 두 해에 걸쳐 선정되어 수상을 받고 특별전을 가진 바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필자약력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도예과 졸업
 스웨덴 국립 옷데보리대학교 대학원 석사(MFA)
 핀란드 헬싱키산업미술대학교 대학원 박사(Doctor of Art)
 개인전 2회(스웨덴),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3회
 핀란드 UIAH 도자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도예과 전임강사 역임
 현재 스웨덴 옷데보리대학교 전임강사(공예학부) 및 전임연구원(디자인학부)